

<탁월한 예술가들이 지닌 창조성과 예술성>

임형준(경남대학교 교수)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미적 가치를 나타내게 하는 일체의 생산활동과 그 결과를 말한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화의 값어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독창적, 직관적으로 얻은 아름다움의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과정, 또는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¹⁾

“예술작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비현실적인 것이 우리를 황홀케 한다. 그 마술과 같은 비현실성이 바로 예술가로 하여금 그토록 빠져들게 만드는 예술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예술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예술성, 창조성은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예술활동의 흔적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같은 인간의 예술성은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근원적인 특성이며 인간의 생활을 더더욱 아름답게 하고 감정을 순화하여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한다. 따라서 예술성은 인간 모두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창조적 작용은 예술적 심미력이 발휘되어 나타남으로서 이루어진다. 예술적 심미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술의 충동이나 예술의지를 갖게 되며 이러한 충동이나 의지가 창조작용을 일으켜 예술의 창작심리를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예술적 창조성은 예술적인 값어치 외에도 지적,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가치를 창출해낸다. 다시 말해서 예술적 창조 안에는 그것이 가지는 아름다움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가치가 인간의 감정에 맞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창조과정에는 비가시성, 자동성, 비계획성, 무의식성등이 강조되긴 하나 창조과정에 있거나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적 조작이 필요하며, 시행착오, 우연한 관찰, 우연한 체험 등에서 의식적 경험을 갖게 된다.

이 예술의 창조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본다면 첫째, 무엇인가를 생산하거나 만들고 싶은 단계. 둘째, 창조적 상상력이 자극되는 단계. 셋째, 구상단계의 내용이 통일과 질서를 얻는 단계. 넷째, 구상력이 완성되는 단계로 그 과정

1) 이종복, 「창조교육 이론과 방법」, 교육과학사, 2001, p.264.

을 거치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이루어 내게 된다. 이러한 예술적 창조성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정신적, 사회적인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독자적인 값어치를 지닌 독립적인 창조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한 예술가들이 지닌 창조적인 예술성은 개인의 특성(개인 심리적 기원론)과 사회문화의 영향(사회 문화적 기원론)이라는 복합적 상황 속에서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조성은 상상력, 직관력, 사고력 등의 요소를 가지며 자유성과 추진력, 자기초월성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창조성은 인간의 기질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전인적인 능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의 역사 속에 그러한 전인적인 능력인 창조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세인들의 평범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후세인에게 기억 될 수 밖에 없는 인물이 된 거장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가진 비범성과 탁월성을 통해 창의력, 창조성이라는 것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 de vinci, 1452-1519)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 조각가,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전성기에 피렌체 근교 빈치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수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학문 특히 음악에는 신동인양 재주가 뛰어났고, 유달리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여 화가인 베르키오에게 사사를 오랫동안 받으며 기초를 다졌다. 그는 자신의 회화와 소묘에서 인간지식의 미개척분야를 역전시키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소묘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으며, 이것을 과학적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목표는 실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주로서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가지 질문의 해답을 발견하면 즉시 또 다른 문제를 향해 돌진하는 탐구정신의 소유자였다.

화가로서의 그의 성과는 15세기의 사실주의를 완성하였고 더욱이 그것의 정신적인 깊이를 주관적인 순화로 발전 시켜 나가면서 고전예술에의 길을 택하였다. 그의 특색은 깊은 정신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놀라운 사실적 표현 기교의 구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15세기초 이래의 르네상스 화가들이 조금씩 노력하여온 사실기법을 집대성하여 명암에 의한 입체감과 공간의 표현을 성공한 것이 다빈치였다. 그는 물체와 물체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투시원근법의 연구에 힘썼고, 직접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여 근육의 조직을 알아보는 해부학을 최초로 쓰기도 하였다. 또 유채기법을 개량하여, 이것에 의하여 처

음으로 밝고 어두움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화가는 자연에 대해 대화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한 그는 자기주변의 세계에 대한 지치지 않는 탐구자로서 회화를 과학으로 간주하고 그 영역을 단순한 재현 이상으로 확대 시켰다.

다빈치는 예술가일 뿐 아니라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였다. 위대한 상상력으로 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전차, 대포, 비행선 등 현대인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을 그는 벌써 고안해 냈고 자세하게 스케치해 두었다.

그의 방대한 수기에는 회화, 조각, 건축, 천문, 기상, 물리, 수학, 지리, 지질, 수력, 해부, 생리, 식물, 동물, 토목공사, 하천운하 등을 비롯하여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송시키는 장치, 관개용 배수장치, 병기, 자동인형, 비행을 위한 장치 등 많은 분야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원래의 출발은 회화, 조각이지만, 그 회화, 조각에 대한 관심을 심화하면 할수록 태생 등에 정밀함이 요구되었고, 저절로 관찰력은 날카로워졌다. 그리하여 인물화를 그릴 때는 인체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고,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으며, 혈관까지 미세하게 관찰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그의 사물에 대한 자세이다. 또한 그림의 수법을 수련하는 과정에서는 수학이 필요해졌고, 새가 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무게와 밀도의 관계, 풍압이 날개에 미치는 힘의 영향에 관해 실험했으며, 낙하산 같은 것도 고안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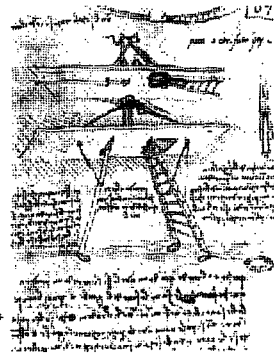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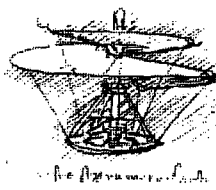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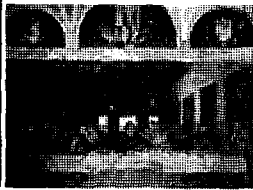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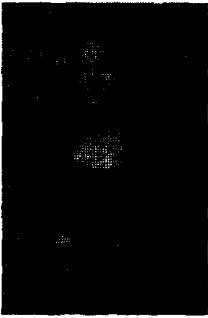


그림 1 모나리자 그림 2 최후의 만찬 그림 3 헬리콥터 구상 그림 4 접개식바퀴 구상

그는 <자연계의 법칙성을 밝혀 나간다는 것은, 자연을 관찰하여 인식을 심화시키고, 그것을 객관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런 이론을 끊임없는 실천과 통일적 노력으로 포착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르네상스인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가 창조한 것들의 방대한 영역과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개념도 그를 규정짓기에 충분치 못 할것이다.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1881-1973, 스페인)

20세기의 미술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이 빠져서는 전개해 나갈 수가 없고, 끊임없는 열정과 샘솟는 실험정신으로 미적 영역의 새로운 개념을 발굴하여 19세기 미술의 마침표를 찍은 장본인이었다.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장르와 대상의 제한이 없이 표현해 내는 독창성, 그리고 유래 없이 많은 작품을 남긴 피카소는 1881년에 태어나 10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아흔두살에 숨을 거둘 때까지 8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의 양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해, 그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도서관의 서지목록을 작성하는 작업과 비견될 지경이다.

피카소의 대략적 작품 카달로그에는 1만8천여점의 회화작품과 소묘가 있고, 그 밖에도 1,200여점의 조각과 3,200여점의 판화, 149개의 드로잉노트, 스케치 4,700여점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저작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피카소를 한 유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지는 않았다. 더욱이 그는 단 한번도 어떤 유파의 리더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한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번뜩이는 영감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려 했던 ‘뛰어나고 고독한’ 창작자로서, 그리고 전통의 계승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림 5 우는 여인(1937) 그림 6 게르니카(1937) 그림 7 머리빗는 여인(1940) 그림 8 아비뇰의 처녀들(1907)

그는 1차, 2차 대전, 스페인 내란 등 엄청난 격동과 전쟁과 변혁과 혁명기였던 20세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예언가요 선각자였다.

그는 美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철학이요, 경제요, 정치이며 문화임을 보여 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예술가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는 그의 예술세계는 별난 해프닝과 예술적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제 전설적 인물이 된 피카소

는 개인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거대하게 상징화되었고, 모든 예술에서 새롭게 변형되어 낯설게 보이는 것은 다 피카소 적이다 할 정도가 되었다.

피카소는 현대사에서 아인슈타인, 다윈,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평면 회화 해체와 신미술의 창조와 지각 변동을 준 엄청난 혁명이었다.

그의 작품은 모든 주제를 망라해서 다루었고, 거의 모든 양식을 시험하면서 현대의 전위미술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말하고 있다. “나는 미리 세워놓은 미학의 기반에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느님도 사실은 또 하나의 예술가일 뿐이다. 그는 기린과 코끼리와 고양이를 발명하셨다. 그분은 어떤 스타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여러가지를 시도했다. 조각가도 마찬가지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시대의 문화적 불만과 태도에 호응을 맞추고 있는 독창적 예술가다.” 이는 그가 구상한 삶과 예술에 대한 당당한 발언이자 그의 마지막 자기 정체성을 요약한 말이다.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 1887-1968)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굵은 획을 남긴 작가 마르셀 뒤샹은 미술의 양식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개념자체에 혁신을 가져온 작가이다. 그는 분명 20세기 미술에 있어 피카소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17년 뉴욕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서 열린 앙데팡당전.

참가비 6달러만 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젊고 패기 만만한 작가들의 전시회였다. 거기에 ‘샘(Fountain)’이라는 제목을 붙인 남성용 변기 하나가 출품작으로 접수되었고, 주최측은 경악했다. R.MUTT라는 변기제조업자의 싸인까지 되어있는 당당한 한 점의 작품! 뒤샹이 출품한 것이었다. 결국 이 변기는 전시기간 내내 칸막이 뒤에 폐기되어 있었고 전시가 끝나자 뒤샹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란 제목의 글에 “참가비를 낸 모든 화가는 전시할 권리를 갖는데 작품 ‘샘’은 어떤 근거로 전시되지 않았다. 머트씨의 ‘샘’은 부도덕하지 않다. 그가 그것을 자기 손으로 제작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평범한 생활용품을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관점아래 그것이 갖고 있는 실용적 의미가 사라지도록 재배치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소재의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 낸 것이다.” 라고 씌우로서 기하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미학적 차원에서는 선호할 수 없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샘’의 원리들과 관련해 미술의 역사라는 긴 선상에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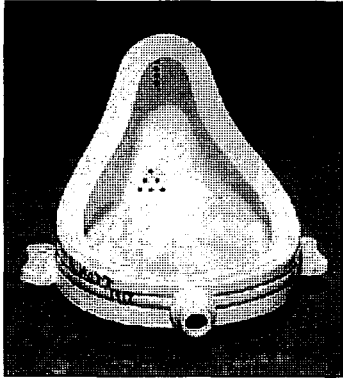


그림 9 샘(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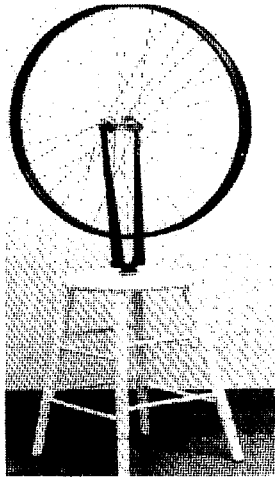


그림 10 자전거 바퀴 (1913)



그림 11 계단을 내려 가는 누드(1912)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변기나 자전거 바퀴를 선택해서 ‘이것도 예술이다’ 라고 예술가가 선언할 때 그것을 예술이라 인정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자연을 그림으로 옮기는 미술에서의 ‘재현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뒤샹의 반 전통적 사상은 미술에서 ‘레이디메이드(ready-made)’란 용어와 개념으로 점점 확실하게 정착되어 갔고 손으로 만드는 수공적 기술이 아닌 선택하는 정신적 행위가 예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뒤샹의 이론은 ‘개념미술(conceptual Art)’의 기초를 이루었고, 레이디메이드, 즉 기성품을 원래의 환경과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본래의 목적성을 잃게 되고, 단순히 사물 그 자체의 무의미함 내지 조형성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브라크나 피카소 또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바닷가의 돌 조각이나 짐승의 뼈 등을 주위 오브제로 사용한 방법과 다를 게 없는 것으로 美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예술가의 정신적 선택에 의해 생활소품(기성품)이 예술작품의 지위에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을 넘어 현대미술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전위적인 다다이스트로서 어떤 부류에도 얽매이지 않은 다다이즘정신을 구현한 예술가였다.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04-1989)

달리는 금세기의 가장 특이하며, 괴이한 화가로서 그의 작품 속에는 현대의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무의식의 위력이 내재 되어있다. 달리는 스페인의 초현실주

의 작가이다. 그는 중류층에 속하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달리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이미 죽은 그의 형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자신에게서 죽은 형의 모습을 찾으려는 데에 강한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자신의 형에 대한 콤플렉스에 빠져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주 그에게 ‘너의 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귀의하였노라’고 함으로써 어린 달리를 신비한 혼란 속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의 극히 내성적이며 수줍던 성격이 때론 격렬한 일면을 보인 것도 이 사실과 깊은 관련을 보인다. 후일 달리는 종교화에 대해 대단한 집착을 보이는데 그의 대표작 <십자가 성요한의 그리스도>는 어릴 때부터 받은 자극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겠다.



그림 12 내란의 전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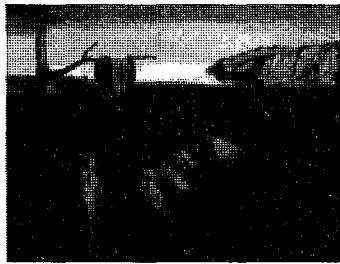


그림 13 기억의 고착(1931)

그림 14 십자가 성요한
의 그리스도(1951)

그는 어릴 적부터 하얀 암벽이라든가 심연의 바다 등에 경이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예술가가 그러하듯 그 또한 어릴 적 경험이나 관심의 영향으로 그의 예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어릴 적’이라면 그는 ‘태아 때부터’ 라 해야 옳을 것이다.

달리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그들 존재의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에 대해 결코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직 회미하게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 기억은 그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실로 자궁 내에서의 삶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물고 뚜렷한 기억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싶다. 사실 내게 무엇을 느꼈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신성하고, 다름 아닌 천국이요.>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자궁 내에서 보았다는 뚜렷한 환영 속의 달걀 형상은 그의 초현실주의 작품의 소재로 그의 심벌처럼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창작세계에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성장한 카다케스해안과 리가트항인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불모의 고장이요, 아침은 난폭하고 거친 명랑함을, 저녁은 기분 나쁜 비애를 가끔 느끼게 하는 곳이다.'라고 했듯 그의 작품의 분위기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생애를 통해 일곱 번의 결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인을 찾아 해했던 피카소와는 달리, 그는 일생을 갈라라는 한 여인에게서 구원을 얻고 창조적 에너지를 받았는데 10년 연상인 그녀는 원래 친구인 시인 폴 에뛰아르의 아내였다. 그에게 자궁과도 같은 그녀의 존재는 그의 온갖 작품 속에 출연하며, 심지어 성모마리아의 모습까지도 갈라의 형상으로 대신할 정도였다.

미술사에서 달리의 공적은 첫째는, 과거와 현대의 모든 조형표현의 가교역할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냈다. 둘째, 지식에 있어서 최선의 발견에 대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색과 상상력을 갖추고 예리한 호기심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작품가운데 태어나게 함으로써, 달리는 르네상스 이래 후퇴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뻔한 오늘의 예술과 회화를 본래의 기능인 '표현에의 회귀'에 진력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몇 예술가들의 삶의 모습이나 특징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도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창조'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무척이나 닮아있다. 생각하는 사람 즉, 사고자(thinker)가 자기에게 신기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갑작스러운 종결(즉 돌연히 해답이 얻어지는 상태)로 결말을 보게 될 때 그의 행위는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행위의 결과는 예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²⁾

파블로 피카소가 표현양식과 소재와 재료와 대상을 그토록 빈번하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변덕스러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가지 영역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전 학문의 영역을 넘고 넘으며 창조에 창조를 거듭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뒤상이 왜, 안전한 회화작가의 길을 버리고 붓을 꺾고 벼랑위에 서는 모험과 다름없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을까? 달리는 왜, 인체를 해체하고 시계를 구부려 놓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대지와 뒤틀린 인간의 고통을 선택하였을까? 그것은 예술이 갖는 창조성의 최대의 매력인 '새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탁월한 창조성과 예술성을 가진 그들에게 예술이란 하나의 추구해야 할 과제였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론이나 양식 앞에 항상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했고, 포착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예술가였다. 창조성은 모든 인간이 가진 선천적 본성이다. 창의력 있는 예술작품이란 다른 작품의 모방성을 띠고 있거나, 아류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경의로움을 사기

2) 김재은,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 교보문고, 1991, p.19.

에 충분한 탁월한 예술가들의 특징이란 거의 ‘넌센스(Nonsense)’에 가까운 새로움이다. 당대의 시대 감각을 뛰어넘는 넌센스적인 센스! 피카소가 그러했고, 달리가, 다빈치가, 고흐가, 뒤샹이 그러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텐버그(Sternberg)는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분석적인 지능과 창의적인 지능, 실천적 지능 등 세 가지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세 가지 지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세 가지 지능 중 분석적인 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탁월한 예술가들의 경우 잠재적 분석지능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자연에 대해, 사물에 대해, 심미력을 발휘할 대상에 대해 분석적인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인간은 창조적인 문화와의 교류에서 배출된다. 창조성과 발전이란 거의 언제나 끊임없이 열린 사회와 문화를 증대시켜주고, 또한 창조성은 열린 개인을 증대시켜준다.³⁾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 창조능력과 예술충동은 무한히 발전 개발할 수 있는 노다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성과 예술성을 키울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시스템과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이 들러리가 되고 사교육이 주가 되어 부모와 자녀가 한시도 쉴 틈 없이 시달려야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도 미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피카소가 존재하고 있을까?

3) 이종복, 「창조교육 이론과 방법」, 교육과학사, 2001, p.123.